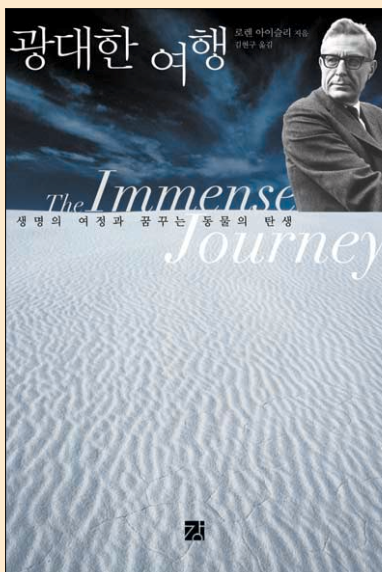


# 광대한 여행(Immense Journey)

글\_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duckhwan@sogang.ac.kr



로렌 아이슬리 지음, 김현구 옮김, 강, 2005

**과**학을 주제로 한 글 중에도 명문(名文)으로 널리 알려진 것들이 있다. 과학적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한 문장이 빼어나다는 뜻에서 그렇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문장으로 쓰인 과학책도 있다는 뜻이다. 명문으로 쓰인 과학책은 문학 작품에서 느껴지는 감칠맛에 탄탄한 알맹이가 더해져 더욱 깊은 감동을 남기기 마련이다.

미국의 인류학자 로렌 아이슬리가 쓴 '광대한 여행'이 바로 그런 책이다. 1957년에 처음 발간되면서부터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명문장으로 평가를 받

아왔던 이 책이야말로 과학 에세이 분야의 대표적인 고전(古典)이다. 네브래스카 링컨 토박이로 자라서 인류학자가 된 아이슬리는 미국 서부의 로키 산맥 주변의 산, 사막, 고원을 찾아다니며 빙하기에 살았던 초기 인류의 자취를 더듬으며 일생을 보냈다.

그는 가난한 철물점 직원이면서 아마추어 셰익스피어 배우였던 아버지로부터 시인의 자질을 물려받았다. 그런 아이슬리의 진면목은 성실한 탐구 활동을 해왔던 학자로 뿐만 아니라, 자연주의자로 고독하고 경건한 자세로 탐사의 여정을 시적 언어로 사유하고 기록한 자연 에세이에서 더욱 훌륭하게 발휘되었다.

'과학 에세이'의 전형(典型)으로 평가받아왔던 '광대한 여행'은 바위틈에 살고 있는 작은 벌레에서 광활한 푸른 행성 지구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경이로움을 아이슬리 자신의 독특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다. 아이슬리는 오래 전에 지구상에 존재했다가 말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생명들이 남긴 화석이라는 흔적들과 대화를 통해 느낀 시간의 영원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정말 멋있게 담아냈다.

그렇다. 단세포 생물로 처음 출현했던 생명이 '만물의 영장'을 자처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일은 그야말로 '광대한 여행'임에 틀림이 없다. 아이슬리는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에 몸을 맡긴 채로 히말라야 산맥을 밀어 올린 지구 내부의 거대한 힘을 느끼고, 수조에서 뛰쳐나와 죽어버린 메기에서 아득한 옛날 과감하게 물으로 올라와 위협하기 그지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생명 진화의 이야기를 읽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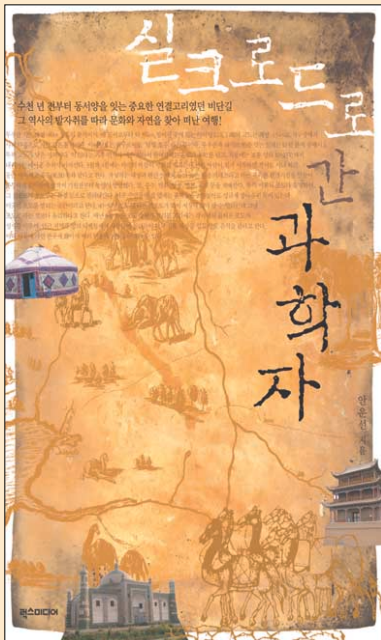
그의 이야기는 3억 5천만 년 전에 말라붙어 가던 연못에서 어쩔 수 없이 어두운 밤을 틈타 뒤뚱거리며 육지로 기어올라온 뼈죽코 물고기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시작된 진화와 적응의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멸종의 위기도 넘겨야 했다. 5천만 년 전에는 쥐를 닮은 어떤 식충 동물에 쫓겨서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야만 했다. 그런 힘든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온 세상이 꿈꿨던 얼어붙었던 빙하기를 거치면서 영장목의 한 갈래로 등장했다.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두뇌'를 발달시켜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지구 환경에 적응하고, 마침내 지구를 지배하는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인간은 자연의 선택에 의해 살아남은 종족이 아니라, 끊임없이 닥쳐왔던 위협 속에서 우연한 성공의 연속으로 존재하게 되었을 뿐이다. 인간의 출현이 자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생명의 진화가 인간의 출현으로 '완성'된 것도 아니

고, 끝난 것도 아니다. 지구상에 흔적을 남겼던 모든 생명은 진화의 광대한 여행 속에 나타난 독특한 역사의 산물일 뿐이고, 그런 점에서 인간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다. 인간이 자연에서 특별한 지위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3억 년이 지나면 우주에서 지구를 찾아온 낯선 우주인이 한 때 지구상에서 뽐내며 살았던 '호모 사피엔스'의 삶을 밝혀내고 신기하게 여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이슬리의 남다른 자연관이다.

## 실크로드로 간 과학자



안운선 지음, 렉스미디어, 2005

우리에게도 여행기를 남긴 과학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학자는 자연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관찰한 내용을 꼼꼼하게 챙기고 분석해보는 것에 익숙하다. 그리고 그야말로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시도 때도 없이 개최되는 학술회의 덕분에 수많은 곳을 쉽게 여행할 수 있는 특전도 누린다. 그런 과학자들이 여행기

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크로드로 간 과학자'는 조금 색다르다. 이미 정년퇴임을 하고 9년이 지난 노학자인 안운선 교수가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녀왔던 17일간의 배낭여행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안 교수는 꼼꼼한 학자로 평생을 강단에 섰던 교육자였다. 그에게 중국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였다. 한국전쟁에서 공산당과 싸우며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임을 체험으로 배웠던 그에게 공산 치하의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년퇴임을 한 후에야 겨우 찾아가 중국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런 변화가 그에게 중국의 오지를 '탐험' 하고 싶은 용기를 주었다.

그의 여행은 베이징을 거쳐 도착한 시안(西安)에서 시작됐다. 시안은 향우를 이겨낸 유방이 세운 한(漢) 나라의 수도 장안(長安)이 있었던 곳이다. 오래 전부터 중국 서북부의 중요한 전략적 요지였던 시안은 지금도 인구 400만의 산시성 성도로 서북 지역의 문화 교육과 산업의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란저우, 허시후이랑, 둔황, 투루판, 우루무치를 거쳐 중국 최서부의 카스에 이르는 그의 여정은 중국 역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꼼꼼한 여행 안내로 가득하다. 자신의 느낌보다는 훗날 같은 도시를 찾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긴 것은 평생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아직도 털어 버리지 못한 증거다. 곳곳에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담은 상자를 넣어둔 것도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이다. 67

### 〈과학독서아카데미 추천 도서〉

1. 『제인 구달: 침팬지와 함께 한 나의 인생』 제인 구달 지음, 박순영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5
2. 『폴링이 들려주는 화학결합 이야기』 최미화 지음, 자음과 모음, 2005
3. 『탐욕과 오만의 동물 실험』 레이 그릭 지음, 김익현 옮김, 다른 세상, 2005
4. 『한국의 과학사상사』 박성래, 유스북, 2005
5. 『우리 태양계』 마크 갈릭 지음, 변용익 옮김, 비룡소, 2005